

추동화 전문의원 검토의견

1.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의 효율적 조직체계

2.

현재,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위원회, 경제 자유구역 위원회의 경제 자유구역 기획단이 있는데 이들 2개 기구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의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기획, 조정, 집행을 총괄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기획단 (Champion Agency)'을 설립하여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야만이 참여정부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인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명칭에 있어 '경제 자유구역 기획단' 보다 '외국인 투자 유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들에게 좀더 매력적일수 있다.

4. 경제 자유구역청에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 지자체에 대한 독립성,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권한부여
- 기업의 경영 개념인 주식회사 개념의 운영
- 통관, 출입국, 건설, 치안 등 권한의 이관이 요구됨

4. ONE-STOP SERVICE란 말 그대로 한번의 연결(single point of contact)로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ONE-STOP SERVICE의 선결과제로

- (1) 통합 전산망의 구축
- (2) 서비스의 표준화
- (3) 지속적인 Monitoring

- (4) 실무자에 대한 충분한 권한이임
- (5) 보편 타당한 인센티브 시스템
- (6) 고객에게 ONE-STOP SERVICE에 대한 접근방법을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

정부차원의 ONE-STOP SERVICE 효율을 위해 선진국들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 아일랜드의 산업 개발청 (IDA)
- 영국의 투자청 (INVEST UK)
- 네덜란드의 스키폴 지역 개발공사 (SADC)
- 중국의 외자유치 공무원들의 기업가 정신과 서비스 정신.

5. 어떤 조직에서든 CEO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Leadership연구에서 Issue가 되는 것이 CEO가 일상적인 업무에 몰입했을 경우 소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CEO 밑의 간부들에게 권한이임 (Empowerment)을 하여 CEO는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전략적, 공격적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획단장이 타 부서에 가서 시간을 빼앗기는 실정이다. 이러한 타 부서에 대한 활동은 Deputy CEO를 지정하여 대행시키는 것이 좋겠다.

6. 기획단 구성 인원의 Quality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 (1) 이들의 업무는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을 설득해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성과 합리성을 추구하여야 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기위한 언어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2) 현재 구성원들의 Qualification의 check를 통하여 그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

- 가능한 교체 또는 대체
- 교육 (내부, 외부)
- scenario를 만들어 상담의 formatting을 만들어야 함

(3) 이들의 Quality의 improvement를 지속적으로 Monitoring해야 한다.

(4) 이들의 업무개선과 업적을 지속적으로 Monitoring하는 제도가 필요함.

SAAI (Service attainment and improvement) 제도가 필요함.

7. 현재 기획단의 Targeting이 미국쪽으로 focus을 한 것 같으나 Target customer를 중국과 유럽, 아시아 권으로 View를 넓혀야 한다. 현재 투자 유치와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중국으로 중국기업은 이미 해외투자를 시작하였다. 중국기업과 투자자, 부자 중국인의 호주머니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중국어를 구사는 한족(순수 중국인) 또는 고학력 조선족의 고용이 필수적임.
- 중국기업의 투자 유치 부서가 필요.
- 중국한방병원 유치(동인당)
- 중국인을 위한 성형외과

8. 또한 현재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중 고등 학교 교육에 있어 미국보다 영국에 점수를 더 주고있음. 영국의 명문 중 고등학교 분교 설립도 고려해야 함. Ex) 이튼, 웨스트민스터, 베네펀, etc.

9. 한국의 세계적 토종기업 들을 엄선하여 예외적으로 인천 경제 자유지역으로 유치하여 분위기를 띄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0. 세계 물류기업(DHL, UPS, FedEx, TNT) 유치와 물류산업의 중요 요건중의 하나가 세관제도 이다. 제도적 보완을 하여 세관제도를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선진국이상의 세관제도는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몇 건의 밀수를 방지하기위해 국가 전체산업에 영향을 주는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자격을 갖춘 국제 특송업체에 자기들 물건을 직접 통관할 수 있는 자가통관을 허용하여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11. 인천 영종도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현재 DHL의 인천공항의 운영방법은 BENCHMARKING 할 수 있는 MODEL 이며 기회가 있을 시 발표의 기회를 주시면 BDP(BEST DEMONSTRATED PRACTICE)로 CASE STUDY할수 있겠습니다.
12. 참고로 인천 영종도의 발전모델을 만드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문기고 시론을 첨부합니다 제가 물류신문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ONE STOP SERVICE 와 EXPRESS INDUSTRY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NEW ECONOMY 의 제목으로 기고한 것입니다.